

붕어섬 생태지 조성 막바지

임실군, 옥정호 주변에 8년간 85억원 투입... 올 연말 사업 완료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옥정호 주변이 휴식과 힐링이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관광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임실군이 옥정호 주변을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올 연말 완료로 목표포로 막바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총 사업비 85억원(국비 35억 4900만원, 군비 49억5100만원)을 들여 지난 8년 동안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옥정호 주변에 자연관찰과 휴식이 가능한 생태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해 아름다운 옥정호 경관과 생태가 어우러진 관광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국사봉 윗터와 바람의 윗터, 바람의 언덕, 물소리길, 요산공원, 잣밭마을 이어지는 구간(4만7,392㎡)의 공원과 산책로 및 등산로 조성하고, 모든 구간은 무료로 탐방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또한 밤에 요산공원을 산책할 때에



임실군 옥정호 생태공원 전경.

는 조명을 이용해 수변생태 야경을 관광할 수 있다.

한때 이 사업은 옥정호 주변 개발사업을 둘러싼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으로 인해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24일 전라북도의 중재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3월초부터 잣밭마을 산책로 조성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정비사업을 마친 국사봉 정상 윗터의 경우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다.

등산객 김모씨는 "국사봉 정상에 나무와 어우러진 데크가 있어 쉬기도 좋고 경치를 조망하기도 편리해져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붕어섬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옥정호 주변에 아가사기하 윗터와 산책로가 많아지고 있다"며 "올 여름휴가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옥정호에서 생태관광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귀농귀촌인 농산물 판매점 문 활짝

순창군 직거래 통한 소득 창출·전통시장 활력 기대

순창군이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전통시장 농산물 직거래 판매점을 오픈하면서 귀농·귀촌인 지원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군은 25일 순창 전통시장내 장육에 귀농귀촌인 농산물 직거래 판매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귀농귀촌인 직거래 판매점은 전통시장 장육 3호 점으로 24㎡ 규모다.

직거래 판매점은 사단법인 순창군 귀농귀촌인 협의회(회장 양환욱)에서 운영하며 100여명의 귀농인들이 직접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백향과, 블루베리, 복숭아, 옥수수 등 농산물을 판매하게 된다. 군은 이번 전통시장내 귀농귀촌인 직거래 판매장 개설로 일석의

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첫 번째는 귀농·귀촌인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판매해 소득을 창출 하기 위한 목적이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의 새로운 활력 창출로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력에도 일조할 것으로 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사업 외에도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전통시장 직거래 판매점 오픈을 시작으로 귀농인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취소

남원시,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

25일 남원시는 최근 논란이 된 광치동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사업주체 스스로 사업계획을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변경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기업 측에서도 "광치동 발전사업 허가 자진철회로 경제적 손실이 많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는 100대 국정과제에 부합하고, 남원시 행정 및 주민 반대사에 심사숙고 끝에 태양광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은 시민 정서나 청정지역 구축이라는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되지 않아 반대한다는 시의 입장을 사업자 측에 명확히 밝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냈다며, 앞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두껍아 헌집줄게 새집다오"

순창군, 저소득층 사랑의 집수리... 군민 만족도 높아

순창군이 최근 화재발생 및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등 긴급하게 주거환경에 도움이 필요한 16가구를 선정하고 '주거급여 집수리 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대상자는 읍면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화재발생, 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16가구를 선정해 진행된다. 낙상 위험에 따른 외부재래식 화장실을 주택내부 화장실로 신설하는 등 가구별 긴급상황에 맞게 집수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가구당 9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긴급지원 외에도 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보수 15, 중보수 10, 경보수 34, 긴급보수 16 등 총 75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투입예산은 4억 4천만원이다.

특히 보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 중에 있다. 경미한 주택수리는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중보수 이상 주택수리는 9월부터 본격 추진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군이 추진하는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은 본인 집에 사는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수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적용해 3년~7년 주기로 350만원~9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붕수선, 욕실개량, 난방공사, 화장실공사 등 주택수선을 추진하며 장애인 이 있는 가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쌍치면 용전마을 김모씨는 "집이 노후화돼 물이 새고 벽에 곰도 가서 위험한 상황이지만 형편상 집수리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군에서 집을 수리해 준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해야... 홍보 활동 만전

임실군은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절차를 거쳐 가족을 사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24일 임실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읍내에 소재한 축산농가 대표자 및 관리인 50여명을 대상으로 한 '무허가 축사 읍·면 제1차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실군의 무허가 축사 읍·면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총 12회에 걸쳐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된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축사들은 내년 3월 24일까지 가족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과 신고, 준공검사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축사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 특례기간 내에 모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 가족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적용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관광개발분야 실무 협의팀과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관계자들이 25일 회의를 갖고 지리산 휴게소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검토를 하고 있다.

남원시 관광도시 건설 속도낸다

도로공사와 지리산 휴게소 리모델링 실무검토 실시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는 관광객 유치에 위한 협업 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산 휴게소를 남원의 거점 관광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남원시 관계자는 밝혔다.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는 지난 6월13일 남원시 관광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25일 남원시 강북대 부시장과 박중주 안전경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광개발분야 실무 협의팀은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지리산 휴게소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검토를 마쳤다.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는 소나무 녹지섬, 남원관광 바닥지도, 피톤치드 힐링정원, 남원 이야기 사진길 등 총규모 6억 4천만원의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중 남원의 특색이 가미된 남원 이야기 사진 길은 춘향테마와 흥부테마, 그리고 남원의 옛 생활테마를 담아 재미있는 조형물과 놀이시설 그리고 관소리가 복합적으로 섞여진 가족단위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고 남원시 이장관 관광과장은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향 산부(Didier l'Ser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